

원기옥 정도는 왜야지 이게 뭐야?

서울시민교회 부목사:홍 순관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썩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 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썩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갓다 먹어 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 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갓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 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0:1~11]

성도들이 제일 공부하지 않는 책, 그러나 이단들이 제일 좋아하는 책이 뭐냐고 물으면 영락없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좋아하는데 성도들은 왜 좋아하지 않을까요? 계시록은 어렵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두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알 만한 분들 가운데서도 계시록을 가까이 안 하는 분들이 이렇게들 말을 해요. ‘성경전체를 주석한 칼뱅 선생도 계시록은 주석을 안 했다’ 하더라.

제가 볼 때 심각한 오해란 생각이 듭니다. 계시록이 어렵고 두려운 책이라면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왜 주었겠어요? 더군다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박해를 받고 지금 죽느냐, 사느냐? 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런 성도들에게 읽어도 뜻도 모르고 어렵기만 한 이런 책을 주었겠느냐? 말입니다. 박해에 직면해 있는 교회에 계시록을 준 이유가 뭘까요? 한 마디로 성도들을 위로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서라고 준 책입니다.

그런데 이런 책을 성도들이 잘 안 읽는데다가 이단들은 다른 공부는 제대로 죽 가르치다가도 계시록에 가서는 비틀어 버려요. 다른 책을 가지고 성경을 참 잘 가르친대요. 솔깃한 얘기만 들려줘요. 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한 너무나 재밌는 성경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솔깃해서 듣고 있는데 계시록을 들어가면 살짝 비틀어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책에서 이미 신음을 얻어 놓으면 계시록에 가서 이상한 소리를 해도 아무 저항 없이 빨리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단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책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니까 한국교회에서 ‘계시록을 가르쳐야 된다. 계시록을 바르게 가르치자!’ 하는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계시록 강좌가 많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리고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그런 책이에요. 단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아서 해석이 조금 필요하고 공부를 조금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읽으면 조금 어렵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계시록을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초대교회에 박해를 앞두고 있던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있는 책입니다.

종말에 심판이 임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 심판을 잘 피해 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무슨 암호나 비법 같은 걸 숨겨둔 책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원본 성경을 컴퓨터에 넣어서 어떤 글자를 검색해서 마치 비밀지도를 찾듯이 찾아놓고서는 ‘컴퓨터로 알아낸 계시록의 비밀’ 이러는 겁니다. 웃기는 소리 하고 앉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것은 듣지도 마세요. 더구나 계시록을 인용해서 성도들을 겁주는 사람이 있다면 이걸 틀림없이 이단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시록은 엄밀히 말하면 심판에 관한 책도 아니에요. 계시록 전체에서 심판에 관한 얘기는 열

마 안 돼요. 재앙에 관한 얘기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군데군데 재앙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재앙과 재앙 사이에 교회를 돌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앙을 보는 게 아니고 재앙과 재앙 사이에 교회를 돌보시는 예수님, 그리고 성도들을 재앙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계시록을 잘 보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이 땅에 이런 저런 재앙도 있고 교회가 이런 저런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교회는 승리한다! 이것이 계시록의 중요한 주제가 되죠. 그래서 오늘은 그 전체 말씀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 것이고 또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박해받고 있는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퀴즈에 나온직한 얘기인데, 계시록에 나오는 재앙이 모두 몇 가지죠? 우리가 아는 대로 7가지 '인 재앙'이 있고 7가지 '나팔 재앙'이 있고 7가지 '대접 재앙'이 있다면 21가지가 되겠죠? 그런데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앙이 별도로 7개, 7개, 7개가 아니에요. 인 재앙이 죽 나가다가 마지막 일곱 번째 인 재앙 속에 나팔 재앙 7개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나팔재앙이 죽 가다가 마지막 7번째 나팔 재앙 속에 대접재앙 7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굳이 개수로 치자면 19개입니다. 그 재앙들을 다른 방식으로 '화'라고 표현하는데 3개가 있습니다.

9장에 첫째, 둘째 화가 나옵니다. 하나 남은 화가 속히 임할 것이라고 했는데 16장에 가야 나와요. 그러면 그 중간에 여러 장은 뭘까요? 사실은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화'가 무서운 게 아니고 '화'와 '화가 임하는 가운데 끼워넣은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어릴 때 본 약장수 생각이 많이 나요.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오늘, 정말 놀라운 것을 보여 줍니다." 언제 보여줘요? 절대 처음에 안 보여줘요. 처음에 이상한 것 하나 보여주고는 이것은 정말 아무 것도 아닙니다. 정말 놀라운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안 보여줘요. 자꾸 있다는 이야기만 하고.

그러면서 중간에 약 팔잖아요. 이 떠돌이 약장수의 목적은 약 파는 거죠. 옛날에 이주일 씨가 '뭔가를 보여주겠습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뭘 보여줬어요? 만날 확실히 보여준다고 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계시록에 나오는 '화'에 너무 집중하지 말라는 뜻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앙과 재앙 사이에 성도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차곡차곡 끼워져 있는데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9장과 16장 사이에 여러 이야기가 끼워져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입니다. 어려운 이야기도 아니에요. 가볍게 한 번 더 봅시다.

10장에 보면 힘센 천사가 한명 내려와요. 구름을 입고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대요. 구름을 입었다면 어떤 구름일까요? 뭉게구름일까요? 아니면 조각구름 같아요? 얼굴은 해 같대요. 발은 불기둥이에요. 뒤에 무지개가 받치고 있어요. 옷은 구름이에요. 얼마나 큰 천사일까요? 그냥 상상을 한 번 해 보세요. 2절을 보니까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유대사람이니까 천사가 밟고 있는 바다는 갈릴리 아니면 지중해겠죠? 구름을 등에 업고 있다고 하니 이것은 거대한 천사예요. 한 발은 바다에 한 발은 육지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한 발은 서울에 한 발은 동해에……. 좀 더 갈까요? 저 태평양에……. 얼마만한 천사일까요? 거대한 천사가 나타났다고 봐야 되겠죠. 이 거대한 천사가 손에 뭘 하나 들고 있어요. 뭐가 들려 있어야 어울린다고 보겠어요? 하늘과 땅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큰 천사가 구름을 등에 입고 얼굴은 태양과 같이 번쩍이는데 다리는 불기둥이에요. 이런 천사가 손에 뭘 들고 나타났는데... 여기에 뭐가 얹혀 있어야 정상일까요? 집어던지면 지구가 박살이 나든지 산이 하나 날아가든지 이럴 정도로 무시무시한 핵폭탄 같은 것이 들려 있어야 정답 아닐까요? 아니면 한번 휘둘러서 때려 버리면 산 하나가 박살이 나는 철퇴 이런 것이 들려 있어야 정답이 아닐까?

옛날에 아이들한테 이 장면을 가르치면서 "얘들아, 이 거대한 천사 손바닥에 제일 잘 어울리는 것은 원기옥이다." 이렇게 얘기 했더니 아이들이 뒤집어졌어요. 여기 다 신령한 분들이 돼서 원기옥을 몰라요. 목사님들이 아는가 싶어 물어봤더니 목사님들도 다 모르고 한 분이 알더라고요. 아이들이 아주 즐겨 보던 유명한 만화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드라곤 볼'이라는 만화인데 주인공이 손오공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손오공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그

만화, 너무너무 재밌어요. 손오공이 위기에 몰릴 때 온 몸의 기를 모으면 손바닥에 둥그런 보름달 같은 것이 하나 떠오릅니다. 생체 에너지! 그걸 집어던지면 산 하나가 날아가는 아주 위력있는 겁니다. 아이들에게는 원자폭탄보다 그런 것이 훨씬 더 재미있어요.

여러분, 하늘과 땅 사이에 거대한 천사가 서 있는데 그 손에 그런 것이 들려 있어야 격이 맞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거대한 천사 손에 뭐가 들려 있어요? 2절에 보시면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가 있어요. 아, 이것 참!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네요? 이 거대한 천사 손에 조그마한 두루마리 하나가 달랑 들려 있네요. 오 목사님이 책을 이렇게 들고 서 있으면 어울려요. 그런데 서 목사님은 책을 들고 서 있으면 잘 안 어울려요. 야구 방망이나 몽둥이같은 것을 들고 서 있으면 좀 어울려요. 어울리는 게 따로 있는 법인데 바다와 육지를 밟고 있는 그 거대한 천사 손에 책이 한 권 달랑 들려져 있으면 안 어울려요. 세상에 이런 웃기는 그림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얼 타셨어요? 나귀, 정답 아니에요. 나귀새끼입니다. 사람들이 한 번도 타 본 적이 없는 나귀새끼, 어른들이 올라타면 버틸 것 같아요? 못 버텨요. 그래서 짐작컨대 새끼 나귀를 어른이 올라타면 발이 땅에 닿아요. 그러면 어떻게 타고 오셨는지 대충 느낌이 오죠? 웃기는 모습이에요. 요즘으로 보면 어른이 세발자전거 타고 들어간 것 하고 비슷한 장면이 아닐까? 웃기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왜 우리를 웃기시나요? 왜 이 거대한 천사 손에, 이게 뭐니까? 왜 이렇게 웃겨요?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 거대한 천사 손에 들려 있는 이 작은 책은 온 세상을 뒤집어엎을 만한 원자폭탄보다 더 위력이 있는 책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이 작은 책은 이 거대한 천사의 손바닥에 올라 있어도 어울릴 만하다. 누구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이예요. 성경을 잘 모르는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웃기는 장면일지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너무너무 그럴듯한 장면이라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할 것은 펴 놓인 책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덮인 책이 셉니까, 펴 놓인 책이 셉니까? 책을 던지는 게 아니고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펴 놓인 책이 더 위력이 있는 겁니다.

참 묘한 게 이 천사의 손에 있는 책은 펴 놓인 책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은 펴 놓인 책입니까? 덮인 책입니까? 1주일 동안 지퍼 채워 놓았다가 주일날 와서 잠시 펴지는 책은 별 위력 없어요. 항상 펴 있어야 합니다. 항상 펴져 있다는 것은 항상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고 가깝게 지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부터 성경책 전부 펴 놓으세요. 지퍼 전부 풀어내시고……. 성경책에 왜 지퍼를 채워놓는지 모르겠어요. 종을 때는 한 군데입니다. 비울 때……. 하긴 요즈음에는 성경책 가지고 다니지도 않는데, 갖고 다니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해야 하나요? 여하튼 이 거대한 천사의 손에 펴 놓인 조그마한 책이 놓였더라는 것은 이 책이 정말 위력적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용도가 9절에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갓다 먹어 버리라' 먹으라네요. 이 책은 먹는 책입니다. 그러나 먹고 나면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보통 좋은 약은 입에는 쓰지만 몸에 들어가서 유익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책은 입에는 달아요. 들어가면 쓴 거예요. 이걸 별로 안 좋은 건데요? 입에 달아서 아이들이 열심히 먹는 것. 설탕, 사탕... 입에 좋아서 어른들이 열심히 먹는 것. 담배, 술, 마약... 입에는 좋은지 모르겠는데 우리 몸에는 굉장히 나쁜 거죠. 그런데 성경이 입에는 단데 들어가면 쓰다네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처음 받아들일 때 큰 기쁨이 있어요. 정말 기뻐요. 겪어보신 분은 알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기뻐 날뛰었는데 당장 문제가 생겨요. 외적으로 박해가 있을 수 있고 내적으로 갈등해야 하는 경우가 참 많아지는 거예요. 복음을 처음 받아들이면 정말 기쁘겠지만 기쁨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곧이어 이런 저런 아픔이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 복음송의 고전이 라고 할 수 있는 <날마다>라는 것이 있어요. 그 곡을 죽 불러보면 끝에 가사가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평화와 안식 참 좋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수고가 있어야 돼요. 아픔과 기쁨도 같이 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일 때 너무너무 기뻐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어려움을 부딪쳐 이겨나가면 나는 기쁘게 내 옆에 있는 저 형제가 모를

때 이걸(복음) 전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면 잘 받아들이나요? 답답하기는 저네들이 답답해야 되는데 내가 뭐 답답해서 이러는 줄 알고...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픔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기쁨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 이후에 그 말씀대로 살려면 분명히 아픔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책을 먹는 사람이 있었는데 상징적인 의미죠. 이것을 완전히 숙달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것을 섭취해서 내 몸의 일부가 되거나 내 몸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안 먹는 것, 이것 참 문제죠. 먹어도 소화 못시키면 이것도 문제예요. 소화는 돼서 흡수가 됐는데 몸 안에서 제 역할을 안 하고 빠져 나가는 것도 참 문제예요. 흡수 됐는데 그냥 빠져나가는 것 중에 중요한 병이 '당뇨병'이죠. 참 사람 애먹이는 병입니다. 먹기는 부지런히 먹었는데 갈숨이라는 놈이 내 몸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꾸 빠져 나가는 병이 있어요. 이것도 정말 머리 아픈 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 것, 정말 머리 아프죠. 말씀을 먹었는데 소화가 안 돼요. 이것도 진짜 문제예요. 소화는 시켰는데 내 몸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빠져 나가버려요. 쉽게 말해서 아는 것은 많은데 이것이 내재화 돼서 바로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책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져 왔는지를 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톨릭에서 제일 큰 이단자가 루터입니다. 루터가 왜 이단인지 아세요? 성당 앞에 95개조 항의문을 내 걸었다. 그건 출발점이었어요. 가톨릭에서 생각하는 루터의 가장 큰 죄는 성경을 자기들 말(독일어)로 번역했다는 겁니다. 가톨릭에서 이걸 어마어마한 죄였어요. 루터가 지상 최대의 이단으로 몰리면서까지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렇게 번역했는데 안 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코틀랜드에 있는 목사가 무엇 때문에 저 만주까지 와서 우리말을 배워가면서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불쌍한 민중이 "이것을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주에서 번역해서 그걸 국내로 가져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들여오다가 나중에는 금서가 돼서 못 들어오니깐 심한 경우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옛날 책은 구멍 뚫어서 묶었잖습니까? 그걸 다 풀어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전부 말아서 노끈을 만들었답니다. 이 노끈으로 짐을 사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노끈을 다 풀어서 재본을 다시 하는 겁니다. 이러면 한 사람이 만주에서 한국까지 책 몇 권 가지고 왔겠어요? 우리에게 성경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선조들이 이런 고생을 했던 말이에요.

그렇게 전해준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돈만 주면 아니, 돈 안 쥐도 교회 가면 하나씩 주워서 봐도 되는데... 여러분, 오늘 날 우리는 너무 풍족하고 편한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너무 경시하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고생해서 이 말씀 전해줬다고 생각한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읽는다면? 그것도 대충대충 읽고 가서 소화도 못 시킨다면? 열심히 공부하고 잘 읽어서 깨닫고 실천 안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에 들어왔다가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한 채 빠져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대한다면 영적으로 말씀에 대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죠. 병을 가지고 있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희망부 아이들 보면 대체로 즐겁게 지냅니까, 고민이 많습니까? 개들 고민이 별로 없습니다. 스트레스 별로 없습니다. 항상 즐거워요. 항상 시끄러워요. 식당 옆 자판기 매상 누가 다 올리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별로 도움 안 되는 손님들이에요. 최대의 고객은 전부 저 위의 재들 이에요. 얼마나 인생이 즐거운지 몰라요. 우리가 보기에는 어때요? 애처롭죠? 참 안타깝죠? 그러나 재들은 너무나너무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설령 읽어도 소화를 못 시키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우리가 재들 모습하고 닮았다는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모두가 희망부 아이들과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옛날 우리 선조들이 말씀을 전해 주겠다고 그렇게 고생했더니 저저 봐라!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말씀입니다. 저 위의 희망부 아이들 볼 때마다 은혜 좀 받으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소화 시켜서 살지 못하면 내가 재들 모습하고 거의 마찬가지로구나! 하나님 눈에...' 그렇게 생각하세요.

성경말씀 많이 알면 조금 머리가 아픕니다. 모르면 스트레스 안 받고 편안합니다. 행복하게 사시든지 마시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성경은 교회 갈 때 품만 잡는 책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몸에 양약이 돼야 합니다. 그 말씀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인생은 참으로 복된 인생이라 생각돼요. 사도바울이 평생 헌신하면서 복음 전하잖아요? 어느 말씀이 늘 그를 붙들고 있었을까요? 추측이지만 이 말이 떠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사도바울은 절대 이 말씀을 잊지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줄여서 “네가 왜 나를?” 이 생각만 하면 바울은 날마다 죽어요. 이런 나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셨지 않느냐? 이런 생각하면서 날마다 죽는 거예요.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헌신했을까요? 생각해보면 답이 금방 나오네요.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하면서 물으셨거든요. 베드로도 앞, 뒤 잘라버리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네가 나를...” 이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성경말씀이 꽉 박혀서 어려움을 당했거나 힘들거나 할 때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꼭꼭 찌르면서 여러분을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루터가 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구절이 루터를 찌르는 거예요. ‘그렇지 믿음으로...’ 행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릎이 빠지도록 이 계단을 기어올라도 여기에는 참된 기쁨이 없다.’ 그걸 깨달은 겁니다.

저도 어려운 시절 지나갈 때에 우리 신앙 선배들이 수련회하면서 표제 말씀으로 삼았던 말씀들이 제 머릿속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 제게 힘이 많이 됐던 것이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구절일 겁니다. 내 시대라는 게 뭘니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있는 모든 일들, 이 시대 전체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이 고백! 그렇다면 내가 좀 어렵고, 힘들고 하더라도 절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모두가 하나님 손에 잡혀 있는 거데 뭘... 중, 고등학교 시절, 자라나는 시절에 이런 말씀에 붙들려 있다면 참 복된 아이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말도 그 사람이 많이 쓰는 말이 삶에 영향을 줘요. 만날 슬픈 노래만 부르는 사람은 슬픈 인생을 살아요.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을 열심히 부르던 가수는 가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잖아요? 공항에서 헤어지는 슬픈 노래만 불렀던 그 사람은 결국 공항에서 헤어지더라고요. 사람의 말도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에 영향을 줘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박혀서 나를 이끌어 간다면 이 말씀이 얼마나 위력이 있을지를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거대한 천사가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위력이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이 그림 한 장으로 보여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한을 불러서 ‘다 먹어라’ 한 후에 마지막 11절 보세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여기 예언은 점쟁이가 점치듯이 내일은 동쪽으로 가면 어쩌고 서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주어지기 전에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해줬어요.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된 오늘날에는 성경말씀을 잘 파악해서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쉽게 말하면 먹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어느 텐데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10장 바로 앞에 화 두 개가 임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셋째 화가 속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셋째 화가 임하면 세상이 끝나는 판인데 그 셋째 화가 임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은 위력적인 것이다. 요한아, 이 말씀 전해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이 어느 텐데요? 곧 셋째 화가 임한다면서요? “셋째 화가 임한다. 그런데 그때까지라도 말씀을 전해라” 이것이 10장의 요지입니다. 10장만 그런 것 아니에요.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셋째 화는 16장에 나온다니깐요. 그 말은 곧 셋째 화가 임하기 전에 성도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교회에 시골벽적인 인물들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재림하시는데 지금 공부한다고 무슨 소용 있고 직장이 무슨 소용 있고..... 전부 팔아 가지고 내뱉라. 이런 적 있었죠? 그것 때문에 제가 담임하고 있던 아이들 둘을 잃어버렸어요. 주변에 그래서 집 판 사람 있을지 몰라요. 당장 셋째 화가 임한다고 하면서 천사가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늘 말씀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른다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도적 같이 오신답니다. 도적이 언제 옵니까? 새벽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새벽이라고 착각한 집에는 대낮에도 옵니다. 언제 올지 몰라요. 도무지 예측하지 못한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낼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관심 갖지 말고 오늘 너는 말씀을 먹고 말씀을 전해라. 이것이 계시록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내일 당장 화가 임할 건데 아니, 그렇게 되면 세상이 끝나는데 재앙을 피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재앙 피할 준비를 하라는 게 아니고 재앙이 임하든지, 셋째 화가 임하든지, 세상이 끝나든지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니 너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 종말이 오고 언제 세상이 끝나더라도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 이 세상은 말씀이 너무 풍성한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아모스가 말한 하나님이 내리는 무서운 재앙 중에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오는 기갈이라. 어쩌면 오늘 우리는 거의 홍수처럼 하나님 말씀이 쏟아지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홍수 때 먹을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먹을 물인지 먹지 못하는 물인지 분별하는 능력을 기르지 못하면 물이라고 마셨는데 그것이 죽을 물 일지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계시록의 핵심은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적어도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얘기하면 재앙과 재앙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먹고 소화해서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초대교회의 현실로 돌아가 봅시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이 잡혀가고 죽는 이런 판국인데도 계시록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그럴지라도 말씀을 간증하라는 하는 거예요. 그 분들의 형편과 오늘 우리의 형편을 비교한다면 오늘 우리는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나요? 읽으려면? 예배하려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시간 없고 바쁘고 여유가 없다고 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해를 못해 낼 겁니다. 다행스럽게 우리 교회가 말씀을 많이 배울 수 있는 여건을 많이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열심히 배우고 일단 배워서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믿는 즐거움이 풍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탁구 많이 쳐요. 재밌나요? 재밌을 것 같아요? 채 쥐고 한번 올라가 보시죠? 진짜 재미없어요. 왜요? 그 공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제일 많이 하는 것이 공 주우러 다니는 것! 진짜 재미없어요. 그게 재미 있으려면 어느 정도 기본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전공하는 사람들 말고도 악기 다루는 사람 많아요. 평소에 와 보면 여기도 뽁뽁거리고 저기도 뽁뽁거리고 그래요. 소리가 예뻐요? 여러분, 부는 악기든지 무슨 악기든지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나도 한 번 해보자 하고 불러 보세요. 소리 못 내는 사람이 절반, 기껏해야 픽픽 바람 부는 소리 밖에 안 나요. 이걸 뭘 재미로 부냐? 처음에는 그래요. 그래도 그렇게 해서 숙달이 되고 시간이 지나야 부는 맛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켜더니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모르는 것이. 그런데 듣고 새기고 그래서 익숙해지면 남이 알지 못하는 즐거움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봉사 다 중요합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귀하게 여기시고 그 일을 잘 감당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